

# 15주 이하에서 조기 양막파수된 태아의 분만 후 임상적 고찰

김태희, 남계현, 김정식, 이해혁, 이권해, 이정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목적 :** 15주 이하에서 조기 양막 파수로 진단된 태아의 분만 후 산모와 출생 후 발달을 추적 관찰하여 산전 관리 및 상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2003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산부인과에서 15주 이하에서 조기양막 파수된 태아 6예를 36주 이후 분만하여 발달 유무를 조사하였다.

**결과 :** 상기 6예의 경우 13주와 15주2일 사이에 복부통증, 질출혈과 무색의 질분비물 분비로 본원 내원하여 질확대경으로 자궁경부에서 질경부에서 양수누출 소견 보이고 nitrazine paper test 양성, actim<sup>TM</sup> 양성 소견을 보인 산모로 약 7일간 1세대 주사 항생제를 투여하고 7일간의 경구 항생제를 투여한 후 상기 증상이 줄어서 지속 관찰을 시행하고 36주에서 40주 사이에 자연분만 2예, 제왕 절개술 4예를 시행하였다. 제왕 절개의 경우 선천성 심장 판막협착증이 심한 산모 1예, 반복제왕 절개술 3예였으며 임신기간 중 검사한 ESR, CRP, 백혈구수치 정상소견보이며 고열 소견은 없었으나 5예에서 17주에서 30주 사이 조기 진통 동반하여 재입원 약 2회씩 하여 퇴원하였다. 분만시 A/S는 8/9이고, 분만 후에 신생아 염증 유무관련 검사상 정상이며 5명의 경우 황달로 약 3일 입원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추적 관찰 상 자기 개월 수에 맞는 발달을 보였다.

**결론 :** 조기 양막파수는 현재 조기 분만의 주요 원인에 속하며 임신이 지속된 경우도 태아와 산모의 감염을 비롯한 합병증으로 태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염의 일반적이 보이지 않고 태아 초음파상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은 본원의 태아의 경우 분만 후에 좋은 예후를 보였다.